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2. Vol. 297



기획특집 브런치 먹고, 영화 보고, 특산물 장도 보고_ 양양웰컴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후, 증상*발생시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관할 보건소 및 지역번호+120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브런치 먹고, 영화 보고,
특산물 장도 보고_ 양양웰컴센터
- 06 ISSUE & PEOPLE_ 나는 1학년 담임 20년차입니다.
강명옥 선생님
- 09 발걸음 촌촌, 마을 가는길_ 양양읍 청곡2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유달리 장국을 좋아하는
양양의 국물음식문화

의기양양

- 14 YANGYANG NEWS
- 19 이모저모
- 20 의정소식_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구룡령과 갈천약수 마을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6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COVER STORY



정암 해변



양양소식 · 297호

| 발행일 2020년 2월 10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의 여가 생활을 바꾸다

브런치 먹고, 영화 보고, 특산물 장도 보고 —양양웰컴센터

대부분 지역에서 복합문화공간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쇼핑몰이 한곳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곤 한다. 요즘 양양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는 곳은 지난해 6월 개관한 양양 웰컴센터이다. 5층 건물에 3,4층에 94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2개관이 개관과 동시에 문을 열고 나머지 공간은 올해 1층에는 커뮤니티 카페가, 2층에는 농산물 판매장인 '코코(coco)양양'이 오픈했다. 양양웰컴센터가 양양지역의 새로운 문화와 쇼핑공간으로 군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양양에 영화관이 생겼다.

지난해 양양웰컴센터에 작은 영화관이 생기면서 군민들의 여가 풍경이 바뀌었다. 그동안 양양에서는 영화를 보기 위해 속초나 강릉으로 가야 했던 군민들이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여유를 즐겼다. 지난 1월에만 4천4백여 명의 관객이 찾았다니 군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웰컴센터는 인기가 높다. 게다가 올해 양양웰컴센터는 새로운 공간으로 가꾸어졌다.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누구나 쉬어갈수 있는 군민들의 공

간이 되었고 2층은 양양쌀로 만든 빵가게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빵가게에는 양양 쌀로 만든 쌀빵과 주먹밥 메뉴가 있어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에는 꿀과 들기름, 쌀 등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비롯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각종 농산가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양양지역 농산물판매로 농가와 시민이 더불어 함께, 코코(coco)양양

양양지역의 농특산물은 보통 양양 장날이나 양양 농수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인 양양몰(yangyangmall.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코코양양'은 양양지역의 농특산물을 언제나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이다. '코코양양'은 '함께 또는 다 같이'란 뜻을 가진 영어 'co'와 '양양'을 조합해 부르기에 좋게 만들었는데, 양양군과 군민이 다 함께 성공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장에는 100종의 제품을 판매중인데,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양양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보고 구입할 수 있다. 코코양양 문철희 대표는 양양으로 귀촌한 지 10년 차로 그동안 송천떡마을 등에서 마을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고 직거래 농특산물 매장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판매장을 통해 생산자가 제품을 홍보하고 시식코너를 열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판매장에서는 양양의 쌀브랜드인 해프미를 비롯해 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이 판매중이다. 4월 이후 산나물을 비롯해 농산물과 과일, 양양송이 등 농산물이 생산되면 품목은 더욱 다양해진다. 특히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생산품을 홍보하고 시식코너를 열어서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하니 양양농산물 직거래매장으로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을 위한 조식 메뉴로 손색없어요.

로컬푸드판매장이면서 양양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햅쌀빵과 조식메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양양을 찾았을 때 가장 아쉬운 점으로 아침식사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손꼽는다. 이에 코코양양에서는 양양햅쌀로 만든 건강빵과 주먹밥으로 조식메뉴를 갖추고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아침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민들뿐 만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판매장으로 손색이 없다. 아울러 양양지역의 농특산물매장으로서 믿고 찾는 직거래 장터로 코코양양의 문전성시를 기대한다.

글·사진 편집부



양양초 1학년 담임 강명옥 선생님 나는 1학년 담임 20년차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이라는 ‘경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다. 특히 올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감회는 더욱더 남다를 것이다. ‘우리 아이가 과연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담임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등의 걱정과 기대감으로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새로운 제자를 맞이할 선생님들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교사 경력 34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온 강명옥 선생님도 앞으로 만날 제자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거운 1년을 보낼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담임, 어렵지만 보람이 크다

강명옥 선생님은 올해도 1학년 담임으로 배정되었다. 이제 막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책임과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다.

그 어렵고 까다롭다는 1학년 담임을 강명옥 선생님은 20년째 맡고 있다. 흔히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라고 하면, 업무도 수월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학년 담임의 하루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흘러간다.

“1학년 1학기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40분씩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게 아이들에게는 버거운 일이지요. 그래서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지는 편이에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화장실 가는 것부터 옷 입히기, 밥 먹는 것까지 일일이 살펴줘야 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선생님 혼자 돌보는 일이 쉽지 않죠.”

그렇게 4교시나 5교시를 마치고 나면 다음 수업 준비와 교사 개별 업무 처리, 방과 후 수업 관리 등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바쁜 나날이 매일 반복된다.

“그래도 저는 다른 학년보다 1학년 담임이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과의 교감도 잘 이루어지고, 애착도 커져서 12월에 접어들면 정들었던 아이들을 보낼 생각에 벌써 우울해지죠. 한 번은 1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제자가 졸업식 날 찾아와서 감사했다며 꽃 한 송이를 주더라고요. 그 때 정말 기쁘고 고마웠어요.”

강명옥 선생님은 모든 일에 서툰고 어설펠던 1학년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두가 마다하는 1학년 담임을 계속 맡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사는 나의 천직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강명옥 선생님은 몇 년 후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넘친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의 수업 결과물로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전시회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번이라도 더 소통하려 하죠.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해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때로는 본인의 반에서만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른 반 선생님에게 미안하기도 하

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지식을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명옥 선생님은 그녀만의 연례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꿈꿔온 교직 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다. 바로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오로지 내 아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이들끼리의 마찰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유치원과 학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담임에게 보육교사의 역할을無理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사의 역할에 고민이 많아지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강명옥 선생님이 교육자의 자리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덕분이었다.

“예전에 1학년 학부모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은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격려와 응원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교직 생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생애 첫 학부모들을 위한 조언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로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애 첫 학부모가 되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모를 수 있다. 강명옥 선생님은 우선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모님들은 입학 전에 단체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아이에게 ‘학교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선행학습을 시키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될 뿐이죠. 1학년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보다는 학교생활이 중심이라는 점도 꼭 인지시켜야 합니다.”

강명옥 선생님은 공교육의 시작인 1학년 때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다음 단추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듯이 기본에 충실한 강명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아이들의 앞날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읍 청곡2리

정월 초사흘날 서낭제 전통
산이 좋은 골짜기에 쉬어가던 마을
공동체 정신 이어가는 주민 화합
2019 농촌건강장수마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최우수 마을

지난 한 해 청곡2리는 어느 때보다 바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냈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마을회관에 모여 요가를 배우고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이웃을 챙기고 마을을 가꾸었다. 그 결과 2019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대상,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최우수 마을로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 익숙만 챙기기 바쁜 시대, 청곡리 마을 주민들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되찾고 있다.



산 좋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비석마을

한 눈에 보기에 단정하게 정돈, 관리된 마을회관 안에는 온기가 돈다. 박상열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께서 담소를 나누고 계신다. 오전 시간에 회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는 것은 농사철에는 어렵도 없고 농한기에만 가능한 일이다.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며 회관에 나와 안부도 묻고 시간을 함께 보내신다고 한다.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 먼저 여쭙봤다.

“푸를 청, 계곡 곡을 쓰니까 그만큼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 마을에 비석이 많이 있어서 옛날에는 ‘비석거리’라고도 불렀어요.”

‘청곡리’이라는 이름에는 ‘산이 좋은 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옛날 고을 수령이나 선비들이 이 마을을 지나갈 때면 설악산 신령을 향해 절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양양지역의 부사 등 관리들에 대한 공적이 기록된 비석이 무려 11개에 이르러 ‘비석거리’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에 있던 비석들은 1960년대 말 도로가 넓어지면서 자리를 바꿔 현산공원에서 다른 비석들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 현재 227세대 427명이 거주하고 있는 청곡리는 1리와 2리로 구분돼 있는데, 1리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2리는 토박이가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구성돼 있다.



정월 초사흘날, 서낭제 전통 이야기

해마다 정월이면 청곡2리 마을이 분주하다. 설날을 지냄과 동시에 초사흘날 서낭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서낭제를 지내오던 풍속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서낭신에게 새로운 한 해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일 년에 한 번 동제를 지낸다.

“서낭제는 우리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전통이에요. 일 년에 한 번 정월 초사흘날 새벽에 서낭당에 올라가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요즘 시대에 맞게 형식이나 절차가 간소해지긴 했지만, 일 년을 시작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엄숙한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서낭제를 마치면 회관에 모두 모여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마을의 첫 행사이자 마을 공동체의 염원을 담은 일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이러한 전통풍습이 잊히는 가운데 청곡2리는 굳건히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서낭제를 마치면 회관에 모두 모여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마을의 첫 행사이자 마을 공동체의 염원을 담은 일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이러한 전통풍습이 잊히는 가운데 청곡2리는 굳건히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화합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공동체 활성화 필요

과거 일손이 필요했던 농촌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일이 일상이었다. 모심기, 벼베기 등에 주민들이 모여 품앗이하며 일을 해왔지만, 비농가가 늘어나고 고령화에 기계화가 된 농촌의 현실 속에 화합과 협동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다.

“2천 평 논에 모내기, 벼베기 하려면 서른 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 둘이 기계만 있으면 한 나절이면 되니까 모일 필요가 없어졌지요. 농촌에서도 공동 작업하는 일이 많이 없어져서 화합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주민들 간에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박상열 이장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노인건강장수마을 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달라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매일같이 모였다. 치매 예방, 요가 등의 건강 프로그램을 비롯해 요리 동아리 활동 등을 마을회관에서 운영했다. 들깨, 메밀, 체리, 찰옥수수 등을 마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해 함께 재배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통해 마을회관의 주방 집기류 등을 모두 교체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완비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오고 싶은 공간으로 정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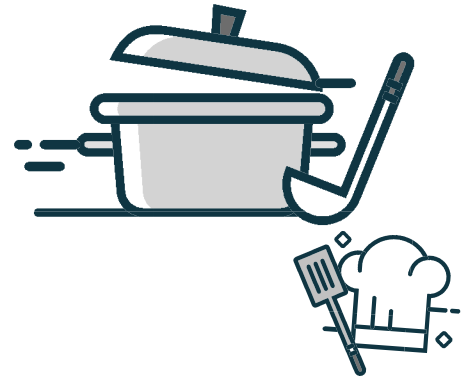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는 마을, 청곡리

오후가 되면서 주민들은 서서히 마을회관으로 모인다. 운동 기구가 마련된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이웃 간의 소통이 늘어난다. 부녀회에서는 매일같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해서 30~40명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나눈다. 주민들이 공동 재배해 수확한 들깨로 짠 들기름을 나눠 먹고, 수확해 잘 빻아놓은 메밀로는 조만간 메밀국수를 해먹을 예정이다.

“이장인 제가 마을에서 가장 막내예요.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내내 보고 자란 어르신들은 거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면 마을에 더 활력이 생기겠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된 마을 회관과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 곳곳을 둘러보니 농촌건강장수마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연이은 수상에 이 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개인 이기주의에 물든 세상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청곡리 마을의 변화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글 · 사진 편집부



유달리 장국을 좋아하는
양양의 국물음식문화

‘우리’라는 지역 집단적 공동체 천렵음식의 발단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과 음식문화는 세계 음식문화에서 한국인이 유일 할 만큼 독보적이다.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우리와 같은 국물음식 문화가 없지는 않다. 유럽의 경우 딱딱하게 식은 빵을 부드럽게 먹기 위해 만들게 된 스프에 빵을 잘라 넣고 끓여 먹거나 찌어 먹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게 된 스프가 그들의 주식인 빵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물음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물음식과는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르다. 그들은 혼자서도 즐겨 먹지만 우리의 국물음식은 절대 혼자 수 먹을 없는 이유가 있다.



국물음식을 절대 혼자 먹을 수 없는 이유

우리의 국물음식에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버르는 불구대 천지(不俱戴天之)할 원수(怨讐)와도 뜨끈했던 국물이 식을 때 쫄면 화해가 될 만큼 분리되었던 ‘나’와 ‘너’를 함께 할 ‘우리’로 강력하게 엮어주는 연대의식이 스프에는 없고 국물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해의 술자리에서도 마른 음식보다 냄비나 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찌개류나 전골류 같은 국물음식을 무심코 주문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들어, 수많은 종류의 국물음식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식은 밥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여 덮혀주는 조리법의 ‘토렴’이나 밥과 국을 한데 섞어 먹는 국밥을 천박하게 여겼던 양반들 때문에 밥 따로, 국 따로 먹는 ‘따로국밥’도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애초 국물음식의 탄생은 혼자 먹기 위한 ‘독식의 음식’이 아니었다. 가난했던 농경민족끼리 한 솥에서 함께 만들어,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섞이게 해주는 공동체의 정서가 매우 강렬하게 담겨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국물음식은 절대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공공의 음식’인 것이다. 동해안 6개 시 군중에서 국물음식문화가 가장 발달한 양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물음식을 보더라도 나 홀로 만들어 진 국물음식은 단 하나도 없다. 함께 만들어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 가장 좋은 탕(湯)문화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양양의 탕(湯)문화음식은 삶의 지형적 구조상 어촌지역 국물음식과 농경지역 국물음식으로 구분되는데, 농경지역을 대표하는 국물음식문화로는 ‘뚜거리탕’이 대표적이다. 양양의 국물음식 중에서 400여 년 전부터 먹어 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국물음식이다.



지역 연대의식 강한 양양의 국물음식

버드나무 줄기나 솔가지로 단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강바닥을 끌고 다니며 뚜거리를 잡는다. 그리고 함께 끓여 나눠 먹으며 ‘우리’라는 지역 집단적 연대감을 갖게 하였던 양양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천렵음식’의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어촌지역을 대표하는 국물음식문화로 ‘섭국’이 있다. 양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촌지역 어부들의 금기음식문화에서 탄생한 음식으로 후에는, 뚜거리탕의 속성처럼 ‘공동체 천렵음식’으로 변형된 국물음식이다. 부정 탈 염려가 있으면 집안에도 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먹지도 않았던 어부들의 신앙과도 같은 음식문화에서 만들어 진 ‘섭국’ 역시 바닷가에서 ‘우리’라는 어부들의 집단적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끓여 먹었던 양양지역의 대표 국물음식이다. 여럿이 함께 놀러 먹거나 별미로 먹었던 메밀국수, 물회도 이 같은 맥락을 가진 속성의 국물음식이며, 유달리 장국을 좋아하는 지역적 식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칼국수 같은 국물음식들도, 알게 모르게 오래 전부터 양양을 ‘우리’로 지탱하게 해주고 있는 ‘지역연대 국물음식’이다. 이처럼 국물음식은 절대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우리’, ‘함께’라는 합(合)과 노동의 품(品)이 필요했던 성질의 음식이다. 이렇듯 양양의 국물음식문화의 발단 역시 애초부터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모여 먹었던 ‘합(合)의 음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물음식의 속성 탓이었을까. 100년 전,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격렬하게 벌였던 3. 1 독립만세운동 또한 ‘우리’라는 지역 집단적 연대감의 뜨끈한 국물 때문인지도 모른다.

글 · 사진: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2020 우리마을 이장님

행정일선에서 마을을 이끌어 나갈 124명의 이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연임 100명 신규선출 24명으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20년 힘차게 달려주실 이장님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김희영 양양군이장연합회장

김희영 이장(기정리장)이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양양군이장연합회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연합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양양읍 기정리 이장을 맡아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김연합회장은 “연합회장이 해야 할 일의 최우선은 이장들의 화합에 있는 만큼 이장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장들의 권익신장과 화합을 토대로 군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임받는 이장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양양군이장연합회장

우리마을 24명의 신규이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양양읍



오흥국
거마리장



김흥수
남문2리장



김종하
사천리장



서면



류일도
상평리장



배승환
북평리장



황병태
논화리장



김영춘
영덕리장



손양면



이근충
송현리이장



이주행
수여리이장



최진만
가평리이장



이희승
수산리이장



김도원
상운리이장



최영길
상양혈리이장



신원철
주리이장



김호영
상왕도리이장

현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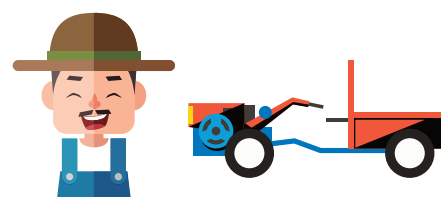
김진동
잔교리장



이근억
명지리장



윤종철
원일전리장



현남면



조오행
포매리장



조혁구
상월천리장

강현면



이재영
물치리장



남정희
간곡리장



김진호
둔전리장



김광래
사교리장



양양국제공항 내 서핑 조형물 설치

양양국제공항 2층 대합실에 대표 관광자원인 서핑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설치해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핑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설치한 조형물은 6개 읍면의 지형을 그대로 표현한 바다면 위에 투명 서핑 보드를 이정표로 세워 놓고 송이, 연어, 해당화 등을 감각적인 색감으로 표현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입 증가 등 공항 활성화와 연계해 서핑 산업을 적극 홍보, 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2020년 도시가스 1,300가구 추가 공급

2020년 양양읍 지역 1,300여 가구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올해도 추가 공급한다. 양우내안에아파트를 기점으로 로얄아파트, 이편한세상, 한양수자인아파트등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구교리, 성내리, 군행리 일원의 단독, 빌라등 공급배관망을 2.8km로 확충하여 1,300여 가구에 공급하기로 참빛도시가스사와 협약을 완료했다. 향후 연차적으로 양양읍 지역 전반에 걸쳐 총 3천여세대에 공급배관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일제 안전점검 실시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사고방지를 위해 지역 내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391개소 사업장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식을 환기시켜 상시 자체점검을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피난유도등 및 피난구 유도표시,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화산소화기, 완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청곡2리 '최우수'

지난 달 21일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결과 최우수 마을은 청곡2리 마을회가 선정되었고, 우수마을은 북분리 마을회와 남문3리 마을회, 장려 마을은 간곡리 마을회, 수리 마을회, 오색1리 마을회, 전진1리 마을회, 죽정자리 마을회가 각각 선정되었다. 평가결과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고 사업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15개 마을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2억에서 3억원으로 늘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4개 과정 19회 실시

농정시책과 영농기술, 식품자원 등 14개 과정에 대한 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4일~31일(주말 제외)까지 실시했다. 작목별로 19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농업 종사자와 귀농인, 희망농업인 등 1,360명이 함께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추진하는 농업시책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을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



우리군 관광객 수, 전년 대비 약 36만명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군의 관광객 수는 전년도 681만 7,000명보다 35만 9,000명이 증가한 717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지역은 낙산해수욕장으로 모두 277만 5천명이 방문했으며, 명승지인 낙산사와 하조대에도 124만 4천명과 40만 3천명의 관광객이 찾아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오색지구에도 35만 6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가면서 상황반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향후 지역 발생 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수립해두었다. 또한, 부군수 주재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 상황반별 추진계획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보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양군보건소는 이미 예방행동수칙 안내문 및 포스터 5천장을 병·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며 보건소 내 열화상감지 카메라 설치, 민원 대응 기관에 마스크 2천개를 보급했다.

이와 함께 기관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예방행동수칙 게시, 지역별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취약대상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해 손소독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설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우한시,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활동을 삼가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양양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상담실 ☎670-2119로 전화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개인위생수칙과 감염병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직접지불금이 공익형직불금으로 변경되었어요! 올해는 4월에 신청하세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직접지불금으로 매년 2~4월에 신청접수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익

형지불금으로 개편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은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한다.

또한,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해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경영 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산복지재단 2020 설맞이 나눔 큰 잔치
2. 양양연탄은행,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3. 청춘은 바로 지금, 펼쳐라 황금시대 노인회관 신축 개관식
4.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수상, 인센티브 2억원 확보
5. 양양 BMX경기장에서 대한자전거 꿈나무 선수팀의 동계전지 훈련
6. 사랑을 나눠요~! 현남면 새마을 부녀회 나눔행사
7. 양양전통시장으로 장보러가요~! 한전양양지사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양양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26개 부서(2실, 11과, 2단,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각 부서별 일반 현황과 부서 목표 및 추진전략, 올해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의원들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올 한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시설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의원, 간사 박봉균 의원)를 구성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1월 2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제철 의장의 개회사와 2020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양양군수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다. 고제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 한해는 더 큰 의욕과 열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고제철 의장 군정자문위원회 전문가 위촉 정비

고제철 의장은 군정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보고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귀선 부의장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

김귀선 부의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유사해 주민들의 혼동이 있으므로 향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방안을 지역 주민에게 잘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섭 의원 현남지역 대중교통 승차불편 해소

김우섭 의원은 현남지역 주민들이 주문한 향호리에서 마을버스를 환승하고 있는데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강릉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황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택시들이 현남지역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의성 의원 오산~동호 생태탐방로 다변화 추진

김의성 의원은 군에서 추진하는 오산~동호 생태탐방로를 조성함에 있어 전 구간을 데크로만 설치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격 실력이 우수한데 사격장 시설이 부족한 만큼 사격장 확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택철 의원 물치항 도루묵 축제 활성화 대책 마련

김택철 의원은 양양군의 유일한 겨울 축제인 물치 도루묵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높은 만큼 군 차원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 도로명주소 개편시 행정리나 자연부락 명을 포함하여 마을을 구분하기 쉽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균 의원 흘림골 조속한 개방을 위한 노력

박봉균 의원은 흘림골 개방에 대해 국립공원에서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만큼 탐방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흘림골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석 의원 강현·서면 지역 고속도로IC 위험요소 해결

이종석 의원은 강현면과 서면에 위치한 고속도로 IC 인근에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설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대천 순환열차 운행시 양양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룡령과 갈천약수 마을

구룡령 옛길 이야기

구룡령 옛길은 과거 영동과 영서를 잇는 물물(物物) 교역로로 이용되었고, 넓은 도로가 없던 시절 양양과 고성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갈 때 주로 이 옛길을 이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한양을 갈 때 명칭에서 유래하듯 용의 영험함을 빗대어 과거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던 길이라 하였다.

구룡령이라는 이름은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다가 지쳐서 갈천리 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아홉아홉 구비를 쉬엄쉬엄 넘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고 있으며, 또한 ‘아홉 아홉 구비 고개 길이 용(龍)이 지나간 자리처럼 구불구불하다하여’ 구룡령(九龍嶺)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명종 9년(1554)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석천 임억령(石川林億齡)이 구룡령의 자연을 읊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관리와 문인들이 시부(詩賦)로 노래했다.

조선시대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확정할 때 양양부사가 새벽 일찍 동헌을 출발하여 이 영(嶺) 길을 넘어 창춘에서 홍천부사와 만나 경계를 짓고 경계표지석을 세웠다고 한다. 이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넓히려고 이 영(嶺)을 빨리 넘으며 달리다 지쳐 숨진 양양의 애향 청년이 묻혔다는



묘반쟁이

묘가 있어 이 영(嶺)을 넘을 때 숙연함과 애향심을 북돋게 한다.

옛길의 중간에는 길의 위치를 표시하는 금강소나무, 묘반쟁이, 솔반쟁이, 횃돌반쟁이 등이 자리하여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옛길을 걷는 이들에게 한층 흥미를 더해주며 삼림욕의 극치를 느끼게 하고 있다.

2007년 12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명승 제29호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하고 있다.

갈천마을 유래와 갈천 약수

갈천리 마을 이름은 칩뿌리에서 나왔다. 화전민이 주로 자리 잡고 살았던 산골마을이라 논이 없다보니 주로 밭에 잡곡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춘궁기가 되면 칩뿌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칩가루 일색이기 때문에 갈천 또는 치래(칩내)라고 불렸으며, 한동안 칩가루가 위장병에 약이 된다하여 칩가루를 이용한 칩 국수가 별미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마을에서 서쪽 골짜기를 20여분 걸어 올라가면 바위틈에서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약수가 솟아나는데, 이 약수는 농도가 강하여 위장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비록 먼 곳에 소재하고 있어도 병을 치료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갈천약수

구룡광산 이야기

마을 위쪽에는 철광석을 채광 하였던 옛 구룡광산의 폐석 더미가 남아있다. 철 함유량이 52%인 양질의 자철광으로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1940년대 초에 일제가 구룡령 입구에 대장간을 차려놓고 철을 캐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어 철을 채굴했고 당시 별칭으로 “인발구”라고 불리는 손수레를 소달구지처럼 만들어 인부들이 철을 싣고 썰매처럼 끌어 내린 후 산 중턱에 설치한 삭도[케이블카]를 이용해 산 아래 선광장으로 옮긴 후 목탄차를 이용해 1945년 해방 전까지 철을 캐냈다고 한다.

1963년 이후 양양광산 함태 광업소에서 철광석 채굴을 재개하면서 부터 착암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약 7~80명이나 되었고 한다.

당시 월간 300톤 규모의 철광을 생산하여 속초항으로 운송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운송이 어렵고 유류파동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70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있는 갭도는 한곳이 있으며 갭도입구가 함몰된 곳이 두개가 더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철광석을 운반하는데 사용하였던 케이블카 시설이 지금도 남아있다.



옛 구룡광산 삭도시설



옛 구룡광산 갭도

갈천분교 이야기

갈천 마을에서 유일한 관공서였던 갈천분교는 1949년 4월 1일 2학급으로 편성하여 현서초등학교 갈천분교장으로 개교를 하였고, 이후 인구증가로 마을이 번성하게 되자 마을의 각종 큰 행사를 치르는 등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갈천에 광업소가 운영되면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 하였으나, 최근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학생 수가 감소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 상평초등학교 갈천분교장으로 편입되었다가, 1999년 2월 28일 상평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갈천분교는 문을 닫았으며, 현재 갈천분교는 마을



갈천분교

에서 산촌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갈천분교는 6·25 한국전쟁 후 나무판자로 지은 건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목조로 지은 건물로 영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다.

글 · 사진 문화원

이달의 책이야기



꽃이 길을 놓았을까

한상호(2020) / 스타북스



짧고 정갈하게 시를 쓴 한상호 시인
사업가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시의 삶을 살았다

양양 출신 한상호 시인이 짧고 정갈한 시로 사랑을 노래하는 세 번째 시집 '꽃이 길을 놓았을까'를 펴냈다. 시집은 1부 '칼에게' 2부 '의자이고 싶다' 3부 '환상통'으로 나뉘어 60편의 작품이 실렸다. 대부분 6행을 넘지 않은 짧은 시들은 저자가 특별히 첨부한 사진들과 함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한반도 안팎을 휘감는 바람소리가 시끄러운 이때에 나라 걱정을 하지 못하는 시들을 내놓아도 괜찮은지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며 "가슴샘 더 마르기 전에 회억(回憶)해두고 밀려올 파랑(波浪)을 의연하게 넘어서고 싶어 썼다"고 했다. 김재홍 문학평론가는 "시인은 인간 존중,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살며 사업가로 성공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했다"며 "그가 단풍들 나이에 시인이 되어 시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정해진 삶의 귀결인 셈"이라고 했다. 월간 '문학세계'와 '시와 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아버지 발톱을 깎으며' '단풍 물들 나이에야 알았다' 등이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를 역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제3회 아시아 시인상을 수상했다. 은퇴 후 고향에 돌아와 시를 통해 지역의 애국열사 추모 선양활동을 펼치고 있다.

책 속 한 구절

"네 손

잡아 주고 싶었다

내 심장 겨누는 네 칼끝

나는 그 손잡이라도 되고 싶었다"

- 칼에게 1 전문 -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케빈은 공주님

미카엘 에스코피에, 두레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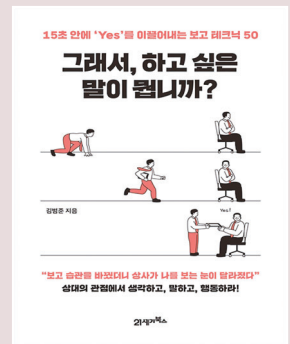


케빈은 남자아이지만 공주님 복장을 할 거예요.
가장무도회에서 남들이 비웃고 놀려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케빈이 공주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이 책은 남녀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 태도, 특성을 뜻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로,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됩니까?

김범준, 21세기북스(2019)



파워포인트 매뉴얼을 책으로 공부하고, 보고서에 예쁜 색을 넣고, 도형을 삽입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었다.

그런데 시작 3초 만에 상사의 입에서 나온 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됩니까?"

보고는 곧 '말하기'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화술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 김범준은 보고는 보고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보고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라는 것이다. 저자는 보고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고의 기본이라고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안내한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

24 | 25

02/12 정직한 후보
02/19 <젠틀맨>
<1917>
<손 더쉽 더 무비 :
꼬마 외계인 롤라>
02/26 <사냥의 시간>
<인비저블 맨>
03/05 <온 워드-
단 하루의 기적>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식회사 오션블루	분야별 1명	전기소방시설 관리자	08:30~17:30	급여협의
		생산관리(반장급)		
		품질관리원(해당장공자)		
푸른하늘환경 (주)	1명	전기(사)자격증 소지자	09:00~18:00	연3,000만원이상
	1명	수질환경기사(자격증 소지자)	09:00~18:00	연2,400만원이상
설악환경산업(주)	2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7:00	시급 8,590원
디그니티호텔	2명	객실청소원	09:00~17:00	월180만원
주식회사 가명건설	1명	경리사무원	09:00~17:00	월170만원이상
한국공항(주)	1명	항공기 지상조업	비행기 스케줄근무	시급8,590원
(주)프로에스컴	1명	보안사원	3교대근무	월190만원
주식회사 윤진	1명	매장 계산원	19:00~22:00	시급9,000원
일조창호	3명	용접원, 창호설치원	08:00~18:00(주6일)	월200만원
(주)세인	1명	용접 및 공장관리	08:00~18:00(주6일)	월250만원
양양축산설계공사	1명	측량원(초보자 가능)	09:00~18:00	급여협의
정다운마을	17명	생활지도원 대체인력	3교대근무	급여협의

양양군 BMX유소년 팀 모집

[자전거선수 육성 지원 사업]은 2015년 부터 전국 17개 시·도 BMX 유소년팀을 창단·지원하며 인성 교육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전거 바르게 타기 안전교육, 유소년 BMX 선수 육성 및 선수 저변 확대, 사이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 사업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초등 남여 1~6학년
중등 남여 1~3학년(단, 유소년팀 출신에 한함)
- 모집기간 : 2020년 2월~3월 15일
- 지원 : BMX 전문 교육 실시 / 전문 강사 교육 무상 지원
BMX 자전거 및 안전 / 훈련 용품 무상지원
유소년 BMX 등급시험으로 경기력 평가
- 문의 및 등록 : 010-5366-3455(박순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1954.12.31. 이전 출생자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2020.1.1.이후 실효처리된 자
- 지원금액 : 1회 한정 10만원 지급
- 신청절차
 - ① 속초경찰서 민원실 /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찾아가는 운전면허서비스 - 본인 직접 운전면허증 지참 방문(위임 불가)
 - 자진반납 관련 서류(진술서)작성 제출
 - 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 우편발송(약 20일 이내)
 - ※ 찾아가는 운전면허서비스 : 양양군청 민원실 / 매월 두 번째 목요일(14:00~16:00)
 - ② 양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 방문
 -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 1개월분 취합 후 익월초 일괄 지급.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

신청하세요

- 대 상 : 양양군 거주 고속도로 이용 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소지
- 신청방법 : 강원도 내 톨게이트 사무실 방문
- 사용방법 : 단말기 신청 후 택배로 받아 읍·면사무소에서 지문 등록 후 사용
- 유의사항
 - 신청인 주소, 택배 수신지가 양양군(강원도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복지카드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 이전에 장애인단말기 구입고객 제외
- 문 의 : 033-811-6053
- 신청시기 : 2020년 2월부터 신청가능

2020년 2월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월별	기 간	접수기간	수 강 내 용
3월	03.02. ~ 03.27. (월,수,금)	02.24 ~ 02.28.	(주간) 컴퓨터 입문, 운영체제(윈도우7 or 10) 기본사용법&유틸리티 활용 (야간) 포토샵(사진 편집),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4월	03.30. ~ 04.24. (월,수,금)	03.23. ~ 03.27.	(주간) 스마트폰 입문 및 활용&정보 지키기 (야간) 스마트폰 활용, ITQ한글(강의 및 실습 병행)
5월	05.04 ~ 05.29. (월,수,금)	04.23 ~ 04.29.	(주간) 인터넷 서비스 활용, SNS 입문 및 활용 (야간) 동영상만들기,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6월	06.01 ~ 06.26. (월,수,금)	05.25 ~ 05.29.	(주간) 한글 입문&활용, 스마트폰 활용 (야간) 포토샵(사진 편집), ITQ한글(강의 및 실습 병행)
9월	08.31 ~ 09.25. (월,수,금)	08.24 ~ 08.28.	(주간) 스마트폰 입문 및 활용&정보 지키기 (야간) 포토샵(사진 편집),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10월	10.05 ~ 10.30. (월,수,금)	09.23 ~ 09.29.	(주간) 인터넷 서비스 활용, SNS 입문 및 활용 (야간) 스마트폰 활용, ITQ한글(강의 및 실습 병행)
11월	11.02 ~ 11.27. (월,수,금)	10.26 ~ 10.30.	(주간) 멀티미디어(사진&동영상 편집) 활용, 포토샵 & 파워디렉터&키네마스터 App 활용 (야간) 동영상만들기,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12월	11.30 ~ 12.23. (월,수,금)	11.23 ~ 11.27.	(주간) 컴퓨터 입문, 운영체제(윈도우7 or 10) 기본사용법&유틸리티 활용 (야간) 포토샵(사진 편집), ITQ한글(강의 및 실습 병행)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② 전 화 : 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정보꾸러미

부동산 관련법령 일부 개정사항 안내(2020. 2. 21.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당초 60일 이내)(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신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단독신고 :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함(신설)(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거래계약 신고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 「공인중개사법」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신설)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금지(신설)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 행위 금지(신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기간: 2019. 7. 24.~2022. 12. 31.

국민 참여 방법

-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무공 수훈자 혜택: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상담 문의: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한국 영웅과 그 가족의 현신을 잊고 기억하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중국 우한시

호흡기질환 주의사항 안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내 드립니다.

|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폐렴, 호흡곤란)

| 위험요인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해산물시장' 방문

|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마스크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씻기 준수

| 귀국 후 주의사항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1339

플라이강원 운항 노선도



International

양양 - 타이베이 매일운항
YNY - TPE Daily

양양 - 타이중 매일운항
YNY - RMQ (2월중 취항) Daily

양양 - 클라크필드 매일운항
YNY - CRK (2월중 취항) Daily

Domestic

양양 - 제주 매일2회운항
YNY - CJU 2Daily
(오전, 오후 및 증편 다수 운항)



FLY GANGWON

홈페이지: <http://www.flygangwon.com>

예약센터: 1800 - 7770